

참여연구원 칼럼



마음의 통합,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총 6년간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필자는 중형단계인 ‘남한과 북한의 마음체계 비교연구’부터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때 처음 참여한 연구주제가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다.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국내외 여러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을 하여 제시하고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몇몇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예비조사 단계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응답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없는지’, ‘내용이 너무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북한에서 온 한 젊은 아가씨는 밝고 자신 있는 태도로 대답하였다. “설문지 전에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설문지라면 하기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설문지라니? 무슨 뜻이지?’라고 의아해 하는 나에게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설문지가 아니네요. 예전에 했던 설문지들은 늘 ‘우리가 어떤지’ 질문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남한연구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소수집단을 평가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그 동안 연구에 참여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불편함의 한 부분을 연구자들이 제공하고 있었고, 그 연구자들 중에 나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남북한 마음의 통합, 나아가 다양한 국내 소수집단과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은 연구의 대상으로써 늘 관찰되고 평가 받는 느낌, 그래서 남한사람들의 시각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다. 또한 매번 똑같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대하면서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들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 남한에 정착한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여전히 남한사람이 아닌 북한사람으로써의 질문을 받게 된다. 남북한 주민의 마음통합을 위해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면서 남북한 주민을 구별하고 분리한다. 구별과 분리 과정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불편한 마음이 커지면 상처가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은 문을 닫는다. 마음을 닫으면 통합은 더더욱 멀어진다.

물론 구별과 분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구별과 분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구별과 분리를 통해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부각되거나 다수자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 늘 의식해야 한다. 다수자의 편견이 담긴 질문이 소수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응답자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자 자신의 민감성,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연구자 자신이 세운 가설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일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는 해주지 않을까?

연구성과



강진연 (전남대학교)

**Colonialism and Contested Membership:
Shifting Sense of Belonging and Postcolonial Division in Korea.
Asian Perspective 제41권 2호 (2017)**

In this article researchers address explanation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impact of Japanese colonial legacies on Korea in the early period of US occupation, they examine how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colonial rule reformulated people's perception of collective membership in the national community, thereby conditioning and shaping Korea's postcolonial division.

They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istorically shifting nature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nse of belonging. Their argument is that the significance of colonialism lies not merely in its institutional reproduction but especially in relational changes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in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nation and political community.



권금상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북중 접경지역 노인여성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마음:
공간사와 일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 4권 2호 (2017)**

이 연구는 두 공간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출신 노인여성들의 구술을 통해 남북분단과 통일에 대한 '마음'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실시한 두 개의 접경지역은 남한과 북한,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구분하는 물리적 장소이면서 국가의 권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공간이다. 참여자들은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전후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이주하여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구축한 공간에서의 경험과 일상은 자신의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마음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었다. 남북 접경지역의 여성들은 북한출신이거나 전쟁 시에 북한출신 배우자를 맞이하여 살아왔다. 이들은 비무장

지대의 특수한 공간 규범과 봉건적 가부장 질서를 승인하며 살았고 분단유지를 원하며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나타냈다. 북중 접경지역 여성들은 북조선 땅을 떠난 이주자들로 북조선인이자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자손들로 인해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남북/북중 접경지역 여성들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엇갈린 '마음'은 공간권력에 대한 순응과 경합 속에서 상호적으로 (재)구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들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마음'은 남북 통합의 미래를 위해 여성 관점의 역사 쓰기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연구단 동정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연구진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9~10월 연구교원 및 연구보조원이 총원되어, 책임/공동연구원 16명, 전임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7명 총 27명의 연구진이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한편, 11월부터 행정전담인력 문성희 선생님이 채용되어 연구센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센터 연구보조원 김은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이 2017년 11월부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11월 3일, 17일 학문후속세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3일 세미나에서는 박세진 박사의 발제(“마음과 선물”)가, 17일 세미나에서는 연구보조원 최종환(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한반도 정세와 미디어 프로파간다”), 박아람(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북한 핵 보유국지위의 허용요인 연구: 핵 확산 전략이론을 중심으로”)의 연구문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연구교원 박세진 박사, 이하연 박사가 각각 “선물과 이름: '근본적 인정 행위'로서의 증여”, “집단 간 화해에 대한 필요기반 모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2017/12/09(토) 한국문화연구학회 2017 가을 정기 학술대회(주제: “익숙한 정치의 지형, 새로운 자본의 지형”,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센터 특별세션”이 구성되어, 박세진 박사(“‘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단상”)와 윤철기 교수(“동독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 사회적 함의: 비판과 저항의 준거점으로서 이데올로기”)의 발표 및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 세션1 - 한국의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영광석 박사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한국문화연구학회 2017 가을 정기학술대회

익숙한 정치의 지형, 새로운 자본의 지형

일시: 2017년 12월 9일(토) 10:00-18:00
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관 지하1층 정산홀

일정	사회자	주제	발표자	토론
09:30 등록				
신진연구자 세션				
10:00-11:10	박세진 (한양대학교)	비평으로서의 텍스트: 영화 <로건>과 정치적 무의식 1970년대 어원어형의 소년담자의 관계: 어원이가 상상하는 공동체 '동행계보 지대' 형성	상정훈 (연세대학교 와우연구소) 김정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연구원)	하승우 (한국예술종합학교)
11:10-11:20 휴식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센터 특별세션				
11:20-12:30	이윤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단상 동독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 사회적 함의: 비판과 저항의 준거점으로서 이데올로기	박세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윤철기 (서울고려대학교)	이강욱 (서울대학교)
12:30-13:45 점심식사 (한국문화연구학회 운영위원회)				
기획세션1-한국의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				
14:00-15:45	백민담 (장문대학교)	태극기집회의 대중심리와 병 민 신화들 한국 우익진영의 대중사회운동 전개와 정치 과정 합리적 보수는 언제 옳가?: 한국우파의 혁신 가능성에 대한 탐색	박찬연 (연세대학교) 김성민 (경희대학교) 조창근 (한양대학교)	김종준 (성동대학교) 연광석 (북한대학원대학교)
기획세션2-플랫폼 자본주의				
16:00-18:00	신원준 (성공회대학교)	플랫폼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최철웅 (충북대학교)	이항우 (충북대학교), 채석진 (성공회대학교)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계사회의 트레	김영연 (노동시간센터)	
		플랫폼과 '소중': 생산과 소비의 경합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	김성운 (문화사회연구소)	
18:00-		플랫폼 위에 놓은 자본주의 이후의 삶	김성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8:00- 총회				

주최: 한국문화연구학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센터

2017/12/12(화)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변화하는 북한: 미디어, 문화 그리고 일상”)의 사전 리셉션(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 오후 8시)이 개최됩니다. 사전 리셉션에서는 영화 “Liberation day (감독: Ugis Olte, Morten Traavik)”가 상영됩니다.

2017/12/22(금)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단장: 김학성 교수)과의 공동학술대회(주제: “마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분단체제와 북한이탈주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가 개최됩니다.

2017/12/22(금) SSK 네트워크지원 사업단의 “2017-18년 제2차 네트워크 통합 심포지엄 및 제5회 차세대사회과학자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차세대사회과학자 학술대회’에서 연구보조원 박아람(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이 “북한 핵 보유국지위의 허용요인 연구: 핵 확산 전략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7/12/26(화) 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오후 5시)이 열립니다. 12월 정기 콜로키움에서는 공동연구원 권금상 박사가 “남북미디어의 탈북인/탈남인 서사”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외교’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균형외교’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은 중견국가로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갑우, 청와대 “일본 낀 군사동맹 불가 일관된 입장” / 한겨레 2017.11.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중국 북경대학이 공동주최하는 한·중 평화통일포럼이 9일 북경대 보야(Boya) 국제호텔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이라는 대주제 하에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구분·진행된다. 2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방안’을 주제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가오하오롱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하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와 장런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구갑우, 민주평통, 9일 북경대와 한·중 평화통일포럼 개최 / 아시아투데이 2017.11.07.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강화를 위해 ‘가정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노동신문은 2일 ‘부모는 자식의 첫 스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역군이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학교·사회교육과 함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데 따라 중요하게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가정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대응해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사회주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학교 교육을 통한 사상 교양의 미숙한 점을 천륜지정(天倫之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성경, [북한TV속의 삶 이야기] 북한 어머니들의 ‘행복’은 어디에? / 중앙일보 2017.11.10.

유엔 총회에서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전세계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이 채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체제 경쟁의 지표로 보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포함해 담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상태인 만큼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 등의 문제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갑우, 유엔,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한반도 긴장완화 지렛대 주목 / 한겨레 2017.09.18.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23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출범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평화만들기 방안을 논의했다.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60여 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이우영,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설득할 대북 특사 보내자” / 중앙일보 2017.11.24.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은 ‘핵강국’이자 ‘평화에호국가’란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이어질 북-미 협상의 의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기간 안정적이었던 북한의 곡물값이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오르는 등 대북제재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부정적 영향이 커, 핵무장 완성 선포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갑우, 김정은 국면전환 돌파구 찾기 / 한겨레 2017.11.29.

통일교육협의회는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주최로 70개 회원단체와 함께하는 ‘2017 통일교육포럼’을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4일 오후 1시 30분 ‘소통과 참여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진행하는 교육포럼은 △정부와 국민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추구 △분단 70년 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 확대와 발전방향 모색 △통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요구 등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에서는 각 나라 청년들이 말하는 평화와 통일, 2부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뉴미디어 시대의 통일국민협약 방향’을 주제로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이우영, 70개 회원단체 참여 ‘통일교육포럼’ 통일교육협의회·국회의외교통일위원장 공동주최
통일뉴스 2017.11.30.

칼럼

다만 지금껏 한국 사회 변화는 무르익은 비판적 논의를 발판으로 현실적 전략과 실천적 동력이 결합되었을 때 가능했음을 기억하자는 뜻이다. 특히 한반도 위기라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위치와 한계를 인지하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평화에 다다르기 위한 ‘현실적’ 목표일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비관적일수록, 어찌면 조금이라도 ‘덜’ 비관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근거 없는 ‘희망’과 ‘낙관’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들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비관과 낙관 사이 / 한겨레 2017.11.15.



선물의 국제정치를 위하여

『세계공화국으로』, 가라타니 고진, 도서출판b, 2007

『우리는 왜 선물을 주고받는가: 선물의 문화사회학』, 김정주, 삼성경제연구소, 2006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코뮌주의자(commune-ist)가 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세계공화국으로』에서, 맑스의 생산양식 개념을 ‘교환양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적 상부구조가 배제되어 있는 생산양식의 개념으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자본제 이전의 사회구성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진이 이 전환을 생각한 핵심적 이유는, 자본은 물론 국가와 네이션이 교환양식 가운데 하나로 자립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상품교환이라면, 국가가 약탈-재분배의 교환양식을 핵심으로 한다면, 네이션은 호혜적 교환관계를 기본으로 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맑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국가와 네이션의 사멸이라는 낙관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자본주의 사회구성이 마치 과거의 생산양식 접합론처럼, 자본과 국가와 네이션의 결합체라는 고진의 주장은, 그 ‘다음’으로 자유로운 개인에 기초하여 호혜적 교환을 회복하는 ‘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을 향한 운동의 상상으로 연결된다.

맑스의 국가론 부재를 교환양식 개념을 통해 비약한 고진의 어소시에이션을 향한 경로는, 실현가능한 것 이라기보다는 칸트적 의미에서 규제적 이념이라는 옮긴이 후기의 친절한 덧붙임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내부에서 국가를 부정해 가는 길과 국가가 군사적 주권을 국제 연합에 양도하는 길, 즉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해 확보된다. “한 나라 안에서만 국가를 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항하는 각국의 운동은 항상 국가에 의해 단절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쟁, 환경파괴, 경제적 격차”를 생산하는 자본 주의 사회구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양을 위한 안과 밖의 운동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진이 ‘세계공화국’을 주장하는 이유다.

고진의 담론을 존 레논의 ‘이매진’에 버금가는 노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고진의 세계공화국이 지구 연방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인지 불분명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고진의 통찰력은, 안과 밖에서의 국가의 지양이란 기획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나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는 국가 안의 원형감옥을 통해 재분배라는 교환양식을 강화한 형태들이다. 복지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국가는 상품 교환을 촉진하는 작지만 강한 국가였다. 고진은 촘스키를 원용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적 이념이 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션이다.

복지국가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한가한 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주제다. 고진을 나름 해석한다면, ‘복지-전쟁국가’ 또는 ‘사회주의적 전쟁국가’라는 한계적 국가 형태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관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부분적으로 냉전의 산물이었고, 복지국가이면서 동시에 전쟁국가 내지는 안보국가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 재분배의 극단을 추구했던 사회주의국가들도 마찬가지로의 국가형태였다.

고진의 공백은, 세계공화국에 이르는 길에서 국제 관계의 변혁의 ‘단계’다. 국가들 사이의 교환을 정의하는 양식에 대해 고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관계에서도 호혜적 교환관계, 즉 선물과 같은 교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국제관계에서 약탈 또는 상품 교환과 같은 교환양식들의 변화가 없다면, 군사적 주권의 이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류 국제 관계이론을 동원한다면,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칼럼 연재

벌어지는 무정부상태 하에서 국가들의 협력 및 정체성 공유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다.

고진의 단계설정을 위해, 나라들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물교환을 분석한 『우리는 왜 선물을 주고받는가』(김정주, SERI 연구에세이)를 읽는다. 선물은, “축하, 기쁨, 배려, 애정, 격려, 기념 등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적인 의사를 눈에 보이는 물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행위”다. 경제학적 입장에서 돈이 “매우 이상적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가로질러 돈이 전형적 선물이 안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물은 사회적 의무감 또는 이타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교환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기성이 이타성을 산출하는 대표적 사례가 선물이다. 선물을 통해 주고받는 행위자들의 “관계역할”이 정립되고 그들의 “연대”가 강화된다. 선물은 또한 제삼자의 눈을 의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규범을 (재)구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국제정치에서 선물처럼 보이는 인도적 지원과 같은 교환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는 사람의 메시지 입력(encoding)과 받는 사람의 출력(decoding)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간극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선물이라고 주었지만, 상대방이 선물일반에서 나타나는 균형맞추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제삼자에게는 ‘퍼주기’와 같은 ‘뇌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진의 칸트 독해에서처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물』이 분석하는 것처럼 돈과 고가의 상품이 선물이 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이 있다. 이해는 국가가 자기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토대다. 더불어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선물교환의 시간적 지체현상과 하나의 가치척도로 비교가 불가능한 선물교환을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국제정치에서 선물교환과 같은 교환양식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공화국』과 『선물』이라는 사실 연결이 불가능한 두 책을 지금 같이 읽는 이유는, 한반도의 국제정치를 바꾸어내지 않는 한, 한국적 진보의 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계공화국으로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김정주 지음

우리는 왜 선물을 주고받는가
선물의 문화사회학



053 동북아 연구특집

심상경연구소

편집: 김민지 연구보조원, 이하연 연구교수